

野 워크숍 ‘계급장 다 떼고’ 1박 2일 난상토론

새정치, 양평서 ‘혁신·단합’ 당 내분 출구찾기

비노 김한길·안철수, ‘당직 정지’ 정청래 불참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부터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시작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용이 거둬지면서 당이 베팅 끝까지 몰린 상황 속에서, 이번 워크숍에서 어떠한 출구 전략이 제시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계급장을 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시 하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만큼 긴급한 과제”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새누리당과 박근혜부를 넘어서는 이기는 야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는 4·29 재보선 이후 흐트러진 당 분위기 수습 방안과 혁신위에 대한 전폭적 지원, 6월 임시국회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재보선 평가보고서를 공유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그동안 선거 평가 보고서들이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이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워크숍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만간 사안으로 꼽히는 당내 계파 문제를 놓고도 원탁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참석해 의원들에게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워크숍 장소에는 ‘혁신하기 싫으면 말하지도 마라’는 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

막을 올린 6월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서도 삼일위법 토론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첫날 다함께 농사체험을 하면서 단합의지를 담금질하기도 했다.

내실 있는 워크숍을 위해 입소부터 퇴소까지 중도 이탈자 없이 전원이 함께 하고 면회나 외출·외박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실시된 분과별 토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과 단합을 위한 절박한 제안들이 잇따랐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이번 워크숍에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모두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 당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계파 간

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토론이 진행되면서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는 등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진영을 대표하는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안 전 대표는 언론사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에 대한 ‘공갈’ 발언으로 최근 ‘당직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불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 입교식에서 입교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문특위 첫날부터 ‘신경전’

여야 자료제출 놓고 논쟁…野 “장관직 사퇴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 감사 선임과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장관직 사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에 모든 것을 밝혀줬다고 하면서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어 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한 자료 제출이 동반돼야 침묵이 금(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을 언급한 뒤 “19건에 대해 국민은 절대 봐선 안 된다는 ‘19금(禁)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저희도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방어막을 쳤다”고 말했다.

장윤석 특위 위원장은 양간 간사자 합의한 512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주승용, 전남대 여수캠퍼서 ‘JNU지식공감’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전남대학교 초청으로 4일 오후 3시 여수캠퍼스 산학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JNU 지식공감’ 강연을 한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제4·5대 전남도의회 의원

과 민선 여전군수, 민선 초대 통합여수시장, 17·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호남선 KTX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천정배 의원이 호남선 KTX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한다. 천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직을 맡은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연구소와 함께 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호남선 KTX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고, 이윤택 급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호남선에 대해 코레일 측과 광주시 담당자가 나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

동호 광주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발제자로 나서며, 함성훈 코레일 광주본부 영업처장과 윤기현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회자로 참여한다.



박혜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문화정책’ 공개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광주 문화재단 초청을 받아 5일 오전 10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문화정책’을 주제로 공개강연을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과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광주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싸고 집안싸움 일촉즉발

친박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원내지도부 비판

김태흠, “유승민 사퇴해야” 당·정·청 갈등 고조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집단 회동을 갖고 최근 분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원내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강연자로 참석,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

헌성을 띠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며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처장의 발표 이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강제성이 벌써 예정돼 있다. 이것은 99% 강제성을 띤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세월호 사령관의 개정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 작업이 들어갔다”면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포럼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월 1일 위헌 시비

가 있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 정부를 야기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숙해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 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빌딩
6차선 대로변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건물
공구, 자재 업체 입점추천
대지220㎡ 건물605㎡
감정가7억4천
최저가4억9천

진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임대수익률 좋은 빌딩
병원, 학원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
대지845㎡ 건물1343㎡
감정가16억3천
최저가11억4천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거리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 여건좋은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화화환3단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화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동 협(김희진)175359-56-130180